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 2)}

김의철[†] · 박영신

중앙대 심리학과 ·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IMF시대 한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1) IMF시대 학생 및 부모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본다. 2) 학생은 학교수준별 성별로, 부모는 자녀의 연령수준별 성별로,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한다. 3)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가 환경변인, 심리변인, 행동변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 4) 부모-자녀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총 2,949명(학생 983명, 부 983명, 모 983명)이었다. 연구결과, 1) 학생은 학업문제로, 부모는 경제문제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학생과 성인 모두 자기조절 대처를 많이 하였다. 2)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학업 및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생활만족도는 감소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자녀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녀양육만족도 및 가정생활만족도는 감소하였다. 3) 학생과 부모 모두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및 성취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4)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부모의 생활만족도 및 부모의 효능감과 정적 관계를, 자녀의 스트레스 증상은 부모의 스트레스 증상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 스트레스, 대처,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1) 이 연구는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선도연구자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준 익명의 두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의철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E-mail: ucholk@chollian.net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관한 일반화된 법칙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이론적인 목적을 위해, 또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응용적인 가치의 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보편적인 원리의 규명에만 집착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현상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생동감 있게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란,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는 심리특징으로서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의 원리와 틀 속에서 공유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예컨대 미국사람이나 인도사람과는 다른 한국 사람 특유의 토착심리적 뿌리와 현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사람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 독립적인 법칙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상호작용한다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 Kim(1999)은 인간 심리와 행동에 대한 전통심리학적 패러다임의 위기를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상호작용모델(transactional model)을 제안한 바 있다. 즉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이고 시간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행동의 법칙을 찾는 선형모형(linear model)에서 벗어나,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인간의 의식과 의지(또는 작

인) 그리고 맥락과 의미의 영향을 포함하려는 시도이다. Bandura(1997)도 작인(agent)으로서 인간의 생성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행동양식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Bandura는 이중 인과모형(dual causal linkage)으로 표현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IMF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해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한국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벗어난 한국사람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IMF의 구제금융지원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충격 및 생활양식의 변화는 획기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 한국사회는 1960년부터 계속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1997년에는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업 및 금융부실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외화유출사태와 더불어 거의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하여 갑작스레 IMF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사회가 'IMF시대'⁴⁾ 상황에 처하면서 한국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설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이 스트레스모형에 포함하고 있는 환경요인에 대한 설명은, IMF시대 한국인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심

4)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차입한 차관을 2001년 8월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임을 2001년 1월에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 'IMF시대'란 IMF의 지원을 받게 된 1997년 12월 3일부터 IMF로부터 차입한 차관을 모두 상환하여 IMF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로 정의한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들은, 한국이 IMF의 차관을 계속 받고 있는 200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수집되었다.

충적인 이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인에게 있어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으로의 급격한 돌입은, 처음 맞이하게 된 상황('새로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예측하지 못했고('예측불가능성'), 너무나도 급박하게('긴급성') 일어난 일이었다. 사회환경요인의 중요성은 규제완화정책이 안전문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박동현, 1999)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불안감은, 개인적으로도 안정되고 만족한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하며, 실직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대두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의 역할이 중요(이훈구, 1998)해지게 되었다.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IMF시대 한국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경험이 그 이전의 스트레스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가 IMF시대로 진입하기 전인 1997년초에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7)와, 동일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IMF시대인 1998년초에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9b)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IMF시대 이전에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는데, IMF시대에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IMF지원 전후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들은 일관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원(박영신, 김의철, 2000a)을 나타내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 대처양식(기분전환을 노력한다던가 참고 수용하는 등)이 가장 현저하며, 사회적 지원의 내용면에서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국사람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토착적 표상들을 확인해 준다. 문화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양식이라고 본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착심리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a)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련 표상이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가정 학교 직장 사회의 상황요인과, 연령 성별의 개인요인 및, 개인내적 차원에서 평가 및 대처, 인간관계 차원에서 사회적 지원의 자원과 내용, 신체 심리 행동 면에서의 스트레스 결과에 관련된 모형은, "한국인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에 대한 탐색 모형"(김의철, 박영신, 1997)을 참고할 것). 즉 국가적인 경제불황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 경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남자는 여자보다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나 극복하려는 생각 등 자기조절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상황이 호전되기를 막연히 소망한다던가 상황을 피하는 등 현실회피적인 생각을 더욱 많이 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생활에서 불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다는 반응율이 높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과 같은 다양한 개인특성 변인들과 스트레스나 생활만족도와 관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IMF시대 전후에 이루어진 질적 분석 결과들(김의철, 박영신, 1997; 1999b; 박영신, 김의철, 2000a)을 토대로 양적 측정을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여,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 수준에 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질적 분석을 통한 일련의 결과들은 양적 측정도구에서의 결과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현상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주위 의미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과 같은 환경변인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특성변인과의 관계도 검토하고자 한다.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사회적 지원(House, Landis, & Umberson, 1988)이나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서양의 많은 연구들에서 누적되어 왔다. 한국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9a;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에서도 직접 간접효과가 분명히 검증되었다. 예컨대 부모나 교사 및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스트레스대처 효능감이나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의 정도가 낮았으며(이상윤, 2000),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관계효능감이나 학업성취효능감 및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의 정도가 낮았다(신현미, 200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

하여 볼 때,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나 생활만족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박영신, 김의철, 2001)이라고 할 수 있다(스트레스 유발요인,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양식,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는, 김의철과 박영신(1997)을 참고할 것).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IMF시대초, 중·고등학생 및 부모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본다. 둘째, 학생은 학교수준별 성별로, 부모는 자녀의 연령수준별 성별로,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김의철과 박영신(1997)은 한국인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에 대한 탐색 모형에서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과 성별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의거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김의철, 박영신, 1997; 1999b; 박영신, 김의철, 2000a)에서 그동안 연령과 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도 한국 학생과 부모의 연령수준별 성별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과 부모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셋째,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가 환경변인으로 사회적 지원과 사회경제적지위, 심리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행동변인으로 성취 및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 넷째, 부모-자녀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방 법

대 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경기도와 전라도에서 표집되었다. 표집대상은 학생과 부모로 분류되는데, 학생은 초·중·고등학생을, 부모는 학생의 부와 모를 표집하였다. 초등학생은 2개 학교에서 6학년을 6학급 표집하고, 중학생은 4개 학교에서 2학년을 12학급 표집하였으며, 인문고등학교 4개 학교에서 2학년 12학급 표집하였다. 표집대상 학교는 모두 학력면에서나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면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평범한 학교였다.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부와 모 중에 1명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모든 분석대상 질문지는 학생과 부모집단이 짝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학생과 부 및 모의 질문지가 수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응답태도가 성실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불성실한 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지의 한 페이지 이상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부와 모의 질문에 응답한 필체가 동일하여 한 사람이 두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답지에 없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 한 페이지 이상 동일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O X로 응답한 경우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로운 자료를 선별한 결과, 분석에 활용된 학생의 최종 자료의 수는 총 2,949명이었다. 학생 983명(초 195명, 중 398명, 고 390명)이었으며, 이 학생들의 부 983명(직장인

907명, 무응답 76명)과 모 983명(취업주부 362명, 전업주부 481명)이 최종 부모 분석대상이었다.

도 구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학생용과 부모용의 두 가지로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학생용 질문지에서 다루는 측정변인은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생활사건,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증상, 생활만족도, 일탈행동, 학업성취도, 배경정보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 및 측정문항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부모지원($\alpha=.91$), 친구지원($\alpha=.91$), 교사지원($\alpha=.92$)의 세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가 모두 .91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부모지원은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으로, 친구지원 및 교사지원은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기효능감의 8개 하위변인은, 부모관계효능감($\alpha=.85$), 친구관계효능감($\alpha=.83$), 교사관계효능감($\alpha=.83$), 사회성효능감($\alpha=.82$), 학업성취효능감($\alpha=.78$), 자기조절학습효능감($\alpha=.86$), 스트레스대처효능감($\alpha=.78$), 어려움극복효능감($\alpha=.83$)으로 구성되었다. 부모관계효능감은 Bandura(2000)의 '가족효능감: 부모자녀관계' 질문지의 총 29문항에서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10문항을 선택하였다. 교사관계효능감과 친구관계효능감은 부모자녀관계효능감 측정문항을 기초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사회성효능감도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학업성취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Bandura(1995)의 학생용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하

위변인으로,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것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다른 변인에 비해 문항수가 많아, 개념적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1문항을 삭제하였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4문항은 Bandura(1995)의 어머니용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변인과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박영신(1997) 연구와 동일하였으며, 나머지 4문항은 대처양식의 4변인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Bandura(1995)의 어머니용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변인 및 문항(박영신, 1997)과 동일하였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1999b; 박영신, 김의철, 2000a)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총 6개 하위변인, 즉 부모관계 스트레스($\alpha=.79$, 8문항), 친구관계 스트레스($\alpha=.87$, 8문항), 교사관계 스트레스($\alpha=.84$, 8문항), 경제적 스트레스($\alpha=.87$, 7문항), 외모 스트레스($\alpha=.84$, 7문항), 학업 스트레스($\alpha=.87$, 7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 스트레스 생활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인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결과를 기초로 밝혀진 범주를 기초로 변인을 구성하고 각 범주에 포함된 항목들에 근거하여 문항내용을 제작하였다. 하위변인은 자기조절대처($\alpha=.75$, 7문항), 초월대처($\alpha=.60$, 5문항), 적극적 해결대처($\alpha=.75$, 6문항), 사회적 지원추구대처($\alpha=.85$, 6문항)의 4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원추구 양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양식으로서(문항 예: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

적 지원 변인과는 구분된다. 사회적 지원의 부모 지원(문항 예: 부모님은 경제적 걱정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교사지원(문항 예: 선생님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친구지원(문항 예: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은, 각각의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구체적인 정서적 정보적 재정적 지원의 정도를 측정한다. 초월대처의 경우 원래 6개 문항의 신뢰도가 $\alpha=.59$ 였는데,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낮은 1개 문항을 삭제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초월대처란 단순히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내적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는 심상에 집중하는 대처방식으로서 초월적 명상과 밀접히 관련된다(문항 예: 잊으려고 다른 일을 한다). 스트레스 증상은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와 동일하였다. 2개 하위변인 즉 신체적 증상($\alpha=.76$)과 심리적 증상($\alpha=.80$)은 각각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생활만족도($\alpha=.85$, 7문항), 학교생활만족도($\alpha=.72$, 7문항), 여가생활만족도($\alpha=.62$, 7문항), 자기자신만족도($\alpha=.79$, 9문항).

일탈행동은 박영신과 김의철(2000b)이 제작한 사소한 일탈행동 11문항에 심각한 일탈행동 1개 문항을 합하여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alpha=.84$ 로 양호하였다. 학업성취도는 본인의 평균성적, 다른 학생에 비교된 본인의 성적, 지난 학기에 비교된 현재의 성적에 관한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구하였다. 기타 배경정보로서 현재 다니는 학교수준(초·중·고)과 성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서는 학생용 질문지와 동일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생활사건,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증상, 생활만족도, 성취도 변인 및 배경정보를 포함하였다. 각 측정변인에 포함된 하위변인과 측정문항은 학생용 질문지와 달리 성인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원은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제작한 학생용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하위 변인은 배우자지원($\alpha=.94$), 친구지원($\alpha=.93$), 직장상사 및 동료지원($\alpha=.94$)의 세 가지가 포함되었으며, 각각 12문항씩 구성되었는데, 신뢰도는 매우 양호하였다.

자기효능감은 5개 하위변인, 즉 부부관계효능감($\alpha=.88$, 12문항), 자녀관계효능감($\alpha=.92$, 15문항), 사회성효능감($\alpha=.83$, 6문항), 스트레스대처효능감($\alpha=.84$, 6문항), 어려움극복효능감($\alpha=.88$,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부부관계효능감과 자녀관계효능감은 Bandura(2000)의 가족효능감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은 Bandura(1995)의 어머니용 질문지를 번역하였고,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2문항은 연구자가 제작(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하여 추가하였다. 사회성효능감은 학생용 질문지에서 1문항을 삭제하였고 그 나머지는 동일하였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학생용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하위변인은 자녀관계 스트레스($\alpha=.87$, 8문항), 부부관계 스트레스($\alpha=.87$, 8문항), 직장인간관계 스트레스($\alpha=.92$, 7문항), 과업 성취 스트레스($\alpha=.88$, 8문항), 경제적 스트레스($\alpha=.91$, 7문항)의 5개로 구성되었다. 모두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변인 및 측정문항은 학생용 질문지와 동일하였다: 자기조절대처($\alpha=.79$), 초월대처($\alpha=.62$), 적극적해결대처($\alpha=.79$), 사회적 지원추구대처($\alpha=.81$). 스트레스 증상 질문지도 학생용과 동일하였으며, 신체증상($\alpha=.82$) 및 심리증상($\alpha=.84$) 모두, 대체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생활만족도의 5개 하위변인과 측정문항은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alpha=.82$, 6문항), 자녀양육만족도($\alpha=.82$, 6문항), 직장생활만족도($\alpha=.80$, 6문항), 여가생활만족도($\alpha=.76$, 6문항), 경제생활만족도($\alpha=.86$, 6문항).

성취도는 가정생활에서의 성공정도,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정도, 전문적인 일에서의 성공정도, 친구나 동료들에 비교한 성공정도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지위의 측정은 가정의 경제생활수준, 교육정도, 직업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평균하였다. 여기에서 직업은 응답자들이 자유반응식으로 각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직업코딩 기준표에 따라 모두 양적인 값으로 변환하였다. 이외에 배경정보로서 연령과 성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시방법

표집대상 학생이 실시할 질문지의 상단에 번호를 부여하고, 학생과 동일한 번호를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에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줄 때 부모용 질문지를 동시에 나누어 주었다. 초·중·고등학생은 수업시간에 수업담당 교사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위변인으로,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것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 자기 조절학습효능감이 다른 변인에 비해 문항수가 많아, 개념적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1문항을 삭제하였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4문항은 Bandura(1995)의 어머니용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변인과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박영신(1997) 연구와 동일하였으며, 나머지 4문항은 대처양식의 4변인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Bandura(1995)의 어머니용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변인 및 문항(박영신, 1997)과 동일하였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1999b; 박영신, 김의철, 2000a)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총 6개 하위변인, 즉 부모관계 스트레스($\alpha=.79$, 8문항), 친구관계 스트레스($\alpha=.87$, 8문항), 교사관계 스트레스($\alpha=.84$, 8문항), 경제적 스트레스($\alpha=.87$, 7문항), 외모 스트레스($\alpha=.84$, 7문항), 학업 스트레스($\alpha=.87$, 7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 스트레스 생활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인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결과를 기초로 밝혀진 범주를 기초로 변인을 구성하고 각 범주에 포함된 항목들에 근거하여 문항내용을 제작하였다. 하위변인은 자기조절대처($\alpha=.75$, 7문항), 초월대처($\alpha=.60$, 5문항), 적극적 해결대처($\alpha=.75$, 6문항), 사회적 지원추구대처($\alpha=.85$, 6문항)의 4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원추구 양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양식으로서(문항 예: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

적 지원 변인과는 구분된다. 사회적 지원의 부모 지원(문항 예: 부모님은 경제적 걱정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교사지원(문항 예: 선생님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친구지원(문항 예: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은, 각각의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구체적인 정서적 정보적 재정적 지원의 정도를 측정한다. 초월대처의 경우 원래 6개 문항의 신뢰도가 $\alpha=.59$ 였는데,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낮은 1개 문항을 삭제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초월대처란 단순히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내적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는 심상에 집중하는 대처방식으로서 초월적 명상과 밀접히 관련된다(문항 예: 잊으려고 다른 일을 한다). 스트레스 증상은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와 동일하였다. 2개 하위변인 즉 신체적 증상($\alpha=.76$)과 심리적 증상($\alpha=.80$)은 각각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생활만족도($\alpha=.85$, 7문항), 학교생활만족도($\alpha=.72$, 7문항), 여가생활만족도($\alpha=.62$, 7문항), 자기자신만족도($\alpha=.79$, 9문항).

일탈행동은 박영신과 김의철(2000b)이 제작한 사소한 일탈행동 11문항에 심각한 일탈행동 1개 문항을 합하여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alpha=.84$ 로 양호하였다. 학업성취도는 본인의 평균성적, 다른 학생에 비교된 본인의 성적, 지난 학기에 비교된 현재의 성적에 관한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구하였다. 기타 배경정보로서 현재 다니는 학교수준(초·중·고)과 성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서는 학생용 질문지와 동일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생활사건,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증상, 생활만족도, 성취도 변인 및 배경정보를 포함하였다. 각 측정변인에 포함된 하위변인과 측정문항은 학생용 질문지와 달리 성인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원은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제작한 학생용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하위 변인은 배우자지원($\alpha=.94$), 친구지원($\alpha=.93$), 직장상사 및 동료지원($\alpha=.94$)의 세 가지가 포함되었으며, 각각 12문항씩 구성되었는데, 신뢰도는 매우 양호하였다.

자기효능감은 5개 하위변인, 즉 부부관계효능감($\alpha=.88$, 12문항), 자녀관계효능감($\alpha=.92$, 15문항), 사회성효능감($\alpha=.83$, 6문항), 스트레스대처효능감($\alpha=.84$, 6문항), 어려움극복효능감($\alpha=.88$,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부부관계효능감과 자녀관계효능감은 Bandura(2000)의 가족효능감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은 Bandura(1995)의 어머니용 질문지를 번역하였고,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2문항은 연구자가 제작(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하여 추가하였다. 사회성효능감은 학생용 질문지에서 1문항을 삭제하였고 그 나머지는 동일하였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학생용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하위변인은 자녀관계 스트레스($\alpha=.87$, 8문항), 부부관계 스트레스($\alpha=.87$, 8문항), 직장인간관계 스트레스($\alpha=.92$, 7문항), 과업 성취 스트레스($\alpha=.88$, 8문항), 경제적 스트레스($\alpha=.91$, 7문항)의 5개로 구성되었다. 모두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변인 및 측정문항은 학생용 질문지와 동일하였다: 자기조절대처($\alpha=.79$), 초월대처($\alpha=.62$), 적극적해결대처($\alpha=.79$), 사회적 지원추구대처($\alpha=.81$). 스트레스 증상 질문지도 학생용과 동일하였으며, 신체증상($\alpha=.82$) 및 심리증상($\alpha=.84$) 모두, 대체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생활만족도의 5개 하위변인과 측정문항은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alpha=.82$, 6문항), 자녀양육만족도($\alpha=.82$, 6문항), 직장생활만족도($\alpha=.80$, 6문항), 여가생활만족도($\alpha=.76$, 6문항), 경제생활만족도($\alpha=.86$, 6문항).

성취도는 가정생활에서의 성공정도,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정도, 전문적인 일에서의 성공정도, 친구나 동료들에 비교한 성공정도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지위의 측정은 가정의 경제생활수준, 교육정도, 직업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평균하였다. 여기에서 직업은 응답자들이 자유반응식으로 각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직업코딩 기준표에 따라 모두 양적인 값으로 변환하였다. 이외에 배경정보로서 연령과 성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시방법

표집대상 학생이 실시할 질문지의 상단에 번호를 부여하고, 학생과 동일한 번호를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에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줄 때 부모용 질문지를 동시에 나누어 주었다. 초·중·고등학생은 수업시간에 수업담당 교사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표집대상 학생과 아버지 및 어머니용 질문지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번호는 단지 학생과 부모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설명해 주고 성실하게 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학생용 질문지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질문지의 실시기간은 2000년 3월 ~ 6월 사이 약 4개월간이었다.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생들에게 집에 갖고 가서 실시하여 다음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표집대상 학생과 부모에게 질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8.0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하였다.

결 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 수준

일상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을 응답자가 한 가지씩 선택한 것을 학생과 부모 집단 각각별로 정리한 결과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학생 전체 집단의 빈도와 백분율을 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59.7%로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관계 스트레스와 교사관계 스트레스가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외모나 경제문제 및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심각하게 지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수준별 집단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빈도를 χ^2 검증을 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에서 중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학업문제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교사관계나 친구관계로 받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감소하고,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받는 학생은 고등학생에서 약간 증가하는 추세였다. 성별로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어, 전체 경향과 일치하여 남녀 모두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모관계 스트레스가 높았다. 정리하면, 학생들은 학업에 대해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반면에, 중·고등학생은 교사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IMF시대 이후 부모들이 가장 스트레스받는 생활사건을 한 가지씩 선택한 것을 정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빈도를 보면 부모들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39.1%)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관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자녀수준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p > .05$), 성별로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빈도에서 매우 차이가 있었다($p < .001$). 부모 남녀 집단 모두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남자는 과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에 여자는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부모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경제적 스트레스 다음으로 남자는 과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여자는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은 차이가

표 1. 학교수준별, 성별 스트레스 생활사건: 학생

생활사건 \ 집단	학교수준별						성 별				전체	
	초		중		고		남		여			
부모관계	24	(12.6)	51	(13.0)	53	(13.7)	67	(14.5)	60	(12.1)	128	(13.2)
친구관계	18	(9.4)	20	(5.1)	16	(4.1)	32	(6.9)	22	(4.4)	54	(5.6)
교사관계	31	(16.2)	32	(8.2)	35	(9.0)	50	(10.8)	47	(9.5)	98	(10.1)
경제적	11	(5.8)	22	(5.6)	29	(7.5)	32	(6.9)	29	(5.8)	62	(6.4)
외 모	11	(5.8)	18	(4.6)	20	(5.2)	22	(4.8)	27	(5.4)	49	(5.1)
학 업	96	(50.3)	249	(63.5)	234	(60.5)	260	(56.2)	312	(62.8)	579	(59.7)
계	191	(100.0)	392	(100.0)	387	(100.0)	463	(100.0)	497	(100.0)	970	(100.0)
$\chi^2=21.95, p=.019$						$\chi^2=6.52, p=.259$						

() 안은 %

표 2. 자녀수준별, 성별 스트레스 생활사건: 부모

생활사건 \ 집단	자녀수준별						성 별				전체	
	초		중		고		남		여			
자녀관계	49	(17.6)	144	(26.5)	136	(25.2)	112	(16.9)	217	(31.2)	329	(24.2)
부부관계	37	(13.3)	69	(12.7)	58	(10.8)	60	(9.0)	104	(14.9)	164	(12.1)
직장인간관계	25	(9.0)	44	(8.1)	45	(8.4)	83	(12.5)	31	(4.5)	114	(8.4)
과업성취	46	(16.5)	91	(16.8)	84	(15.6)	151	(22.8)	70	(10.1)	221	(16.3)
경제적	121	(43.5)	195	(35.9)	215	(40.0)	257	(38.8)	274	(39.4)	531	(39.1)
계	278	(100.0)	543	(100.0)	538	(100.0)	663	(100.0)	696	(100.0)	1,359	(100.0)
$\chi^2=11.02, p=.200$							$\chi^2=98.54, p=.000$					

() 안은 %

있었다.

어머니 집단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스트레스 생활사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chi^2=22.74, p<.001$)가 있었으나,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집단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의 순서에서 동일하였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취업주부-39.0%, 전업주부-39.1%), 그 다음으로 자녀관계 스트레스(취업주부-24.1%, 전업주부-36.9%), 부부관계 스트레스(취업주부-15.1%, 전업주부-14.9%), 과업성취 스트레스(취업주부-14.5%, 전업주부-6.0%), 직장 인간관계 스트레스(취업주부-6.8%, 전업주부-3.1%)

의 순서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과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이와 대조적으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자녀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관계 스트레스가 많은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가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과 표 4에서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의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이다. 표 3에서 학생집단의 전체 평균값을 보면, 먼저 스트레스 생활사건에서 학업의 평균이

표 3. 스트레스 경험,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 평균과 표준편차: 학생

집단 \ 변인	초		중		고		남		녀		계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스트레스 생활사건												
부모관계	3.66 ^a	(1.29)	4.20 ^b	(1.11)	4.73 ^c	(1.11)	4.20	(1.18)	4.43	(1.21)	4.31	(1.21)
친구관계	4.16 ^a	(1.44)	4.40 ^b	(1.28)	4.85 ^c	(1.12)	4.25	(1.27)	4.82	(1.22)	4.53	(1.28)
교사관계	3.28 ^a	(1.40)	4.34 ^b	(1.34)	4.86 ^c	(1.18)	4.16	(1.36)	4.54	(1.40)	4.34	(1.41)
경제적	3.11 ^a	(1.58)	3.75 ^b	(1.46)	4.38 ^c	(1.36)	3.71	(1.49)	4.06	(1.52)	3.88	(1.52)
외모	2.68 ^a	(1.48)	2.87 ^a	(1.33)	3.33 ^b	(1.48)	2.76	(1.34)	3.26	(1.50)	3.01	(1.45)
학업	4.70 ^a	(1.67)	5.46 ^b	(1.21)	5.64 ^b	(1.13)	5.09	(1.40)	5.67	(1.18)	5.38	(1.33)
스트레스 대처												
자기조절	3.85 ^a	(1.42)	4.23 ^b	(1.11)	4.44 ^c	(1.03)	4.22	(1.16)	4.28	(1.15)	4.24	(1.16)
초월	3.70 ^a	(1.38)	3.93 ^b	(1.17)	4.14 ^c	(1.09)	3.88	(1.19)	4.08	(1.18)	3.97	(1.19)
적극적 해결	3.40 ^a	(1.48)	3.66 ^b	(1.22)	3.80 ^b	(1.08)	3.66	(1.22)	3.70	(1.22)	3.67	(1.23)
사회적 지원추구	3.52 ^a	(1.51)	4.17 ^b	(1.42)	4.68 ^c	(1.49)	4.08	(1.48)	4.43	(1.54)	4.25	(1.52)
스트레스 증상												
신체증상	2.56 ^a	(1.28)	2.99 ^b	(1.40)	3.58 ^c	(1.41)	2.88	(1.34)	3.40	(1.47)	3.14	(1.43)
심리증상	2.75 ^a	(1.54)	2.88 ^a	(1.42)	3.34 ^b	(1.43)	2.85	(1.45)	3.23	(1.45)	3.04	(1.47)
전체	2.66 ^a	(1.27)	2.94 ^b	(.88)	4.50 ^c	(.82)	2.87	(1.23)	3.32	(1.28)	3.09	(1.28)
생활만족도												
가정	5.42 ^c	(1.21)	5.17 ^b	(1.17)	4.88 ^a	(1.19)	5.04	(1.20)	5.15	(1.21)	5.10	(1.20)
학교	4.99 ^c	(1.13)	4.35 ^b	(1.09)	4.05 ^a	(1.00)	4.34	(1.10)	4.35	(1.12)	4.35	(1.12)
여가	4.93	(1.13)	4.90	(1.03)	4.76	(1.00)	5.03	(1.02)	4.68	(1.03)	4.85	(1.04)
자기자신	4.67 ^b	(1.10)	4.53 ^{ab}	(.96)	4.38 ^a	(.90)	4.55	(.99)	4.45	(.94)	4.49	(.97)
전체	4.98 ^c	(.96)	4.72 ^b	(.88)	4.50 ^a	(.82)	4.72	(.89)	4.66	(.88)	4.68	(.89)

5.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관계가 높은 값을 보였다. 7점 척도 상에서 4점을 기준으로 4점 이상은 스트레스가 있음을, 4점 이하는 스트레스가 없음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의 다른 스트레스에 비교하여 경제적 스트레스나 외모 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학업문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을 한 가지씩 선택한 것을 분석한 표 1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평균을 보면, 사회적 지원추구 대처양식과 자기조절 대처양식의 평균이 4점 이상으로 초월 대처양식이나 적극적 해결 대

처양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자기조절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주위의 의미있는 타인인 부모나 교사 및 친구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스트레스 증상을 보면,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 모두 4점 이하로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로 스트레스 증상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4개 하위변인 중에서 가정생활 만족도의 평균값이 5.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학교생활만족도 및 여가생활만족도와

표 4. 스트레스 경험,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⁵⁾

변인 \ 집단	초등학생부모		중학생부모		고등학생부모		부		모		계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스트레스 생활사건												
자녀관계	4.34 ^a	(1.51)	4.51 ^b	(1.40)	4.56 ^b	(1.40)	4.47	(1.42)	4.53	(1.43)	4.50	(1.43)
부부관계	4.51	(1.40)	4.40	(1.40)	4.50	(1.33)	4.41	(1.34)	4.51	(1.40)	4.46	(1.37)
직장인간관계	4.27	(1.61)	3.98	(1.64)	4.16	(1.56)	4.14	(1.58)	4.03	(1.66)	4.11	(1.60)
과업성취	4.81 ^b	(1.33)	4.68 ^{ab}	(1.28)	4.60 ^a	(1.25)	4.63	(1.27)	4.71	(1.28)	4.67	(1.28)
경제적	4.74	(1.47)	4.57	(1.52)	4.67	(1.41)	4.57	(1.47)	4.72	(1.47)	4.64	(1.47)
스트레스 대처												
자기조절	4.94 ^a	(1.01)	4.87 ^b	(.99)	4.71 ^b	(1.02)	4.85	(1.04)	4.79	(.98)	4.82	(1.01)
초월	4.06 ^a	(1.06)	4.23 ^b	(1.06)	4.20 ^b	(1.06)	4.15	(1.07)	4.22	(1.05)	4.19	(1.06)
적극적 해결	4.68	(1.14)	4.61	(1.13)	4.52	(1.09)	4.63	(1.12)	4.55	(1.11)	4.59	(1.12)
사회적 지원 추구	4.28	(1.29)	4.19	(1.25)	4.29	(1.24)	4.25	(1.20)	4.24	(1.31)	4.25	(1.25)
스트레스 증상												
신체증상	3.55	(1.46)	3.62	(1.46)	3.53	(1.44)	3.32	(1.36)	3.82	(1.51)	3.57	(1.45)
심리증상	2.87	(1.34)	2.84	(1.35)	2.98	(1.38)	2.65	(1.26)	3.14	(1.40)	2.90	(1.36)
전체	3.21	(1.25)	3.23	(1.26)	3.25	(1.28)	2.99	(1.17)	3.48	(1.32)	3.24	(1.27)
생활만족도												
가정	5.09 ^b	(1.04)	5.13 ^b	(1.10)	4.93 ^a	(1.13)	5.09	(1.08)	5.00	(1.12)	5.04	(1.10)
자녀양육	5.15 ^c	(1.02)	4.97 ^b	(1.01)	4.82 ^a	(1.06)	4.96	(1.05)	4.94	(1.04)	4.95	(1.04)
직장	4.58	(1.02)	4.58	(1.10)	4.62	(1.03)	4.67	(1.06)	4.44	(1.05)	4.60	(1.06)
여가	4.30	(1.09)	4.36	(1.08)	4.32	(1.10)	4.43	(1.02)	4.22	(1.16)	4.33	(1.09)
경제	3.84 ^a	(1.29)	4.00 ^b	(1.30)	4.08 ^b	(1.27)	4.08	(1.24)	3.92	(1.33)	4.00	(1.29)
전체	4.57	(.85)	4.60	(.91)	4.54	(.93)	4.65	(.89)	4.48	(.93)	4.57	(.91)

자기자신만족도 모두 4점 이상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이나 여가생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가정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생활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4를 보면, 과업성취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의 평균 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외에 자녀관계, 부부관계, 및 직장인간관계 스트레스도 모두 4점 이상

으로서,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에서는 자기조절 대처양식의 평균이 4.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적극적 해결 대처양식의 평균이 높았다. 그러므로 부모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과 달리 적극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5) 스트레스 생활사건 하위변인 중에서 직장인간관계와, 생활만족도 하위변인 중에서 직장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모든 분석에서는 전업주부의 자료가 제외되었음. 과업성취스트레스는 직장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넓은 의미의 일과 관련된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집단도 분석에 포함되었음(문항 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증상은 학생과 동일하게 신체증상이 심리증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모두 4점 미만의 낮은 값을 보였다. 즉 부모들도 평균적으로 스트레스 증상이 그리 강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의 5개 하위변인을 비교하여 보면, 가정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5.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녀양육만족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5개 하위변인 중에서 경제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을 보면,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학교수준별 성별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학생 집단

학생집단을 초, 중, 고등학생의 학교수준별 집단과 성별집단으로 분류하여, 이 두 독립변인 간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하였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에서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교사관계와 외모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모관계($F=3.64$, $p < .05$), 친구관계($F=3.24$, $p < .05$), 학업($F=18.31$, $p < .001$)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수준별 주효과를 보면, 부모관계($F=58.09$), 친구관계($F=24.05$), 교사관계($F=91.40$), 경제적($F=52.59$), 외모($F=18.01$), 학업($F=46.51$) 스트레스의 6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에 학교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 집단 평균 차이를 Duncan검정으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큰 값을 보임으로써, 상급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더욱 많았다. 즉 학생들이 점차 성장할수록,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외모나 경제문제에 관련된 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 성별 주효과도 6개 하위변인 즉 부모관계($F=16.52$), 친구관계($F=58.72$), 교사관계($F=22.67$), 경제적($F=21.56$), 외모($F=33.13$), 학업($F=87.05$) 스트레스 모두에서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에서 성별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6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여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및 경제문제와 외모문제로 남학생보다 더욱 스트레스를 받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경우에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자기조절,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원 추구에서 모두 의미없게 나타났으며($p > .05$), 초월($F=5.60$)에서만 $p < .01$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학교수준별 주효과는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자기조절($F=14.93$, $p < .001$), 초월($F=8.86$, $p < .001$), 적극적 해결($F=5.54$, $p < .01$), 사회적 지원추구($F=40.26$, $p < .001$) 대처양식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3에서 평균을 비교하면,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을 하고 초월적 태도를 가지며 동시에 적극적 해결을 노력하고 사회적 지원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주효과를 보면, 초월($F=11.00$, $p < .001$)과

사회적 지원추구($F=18.97, p<.001$) 대처양식에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자기조절($F=2.37, p>.05$), 적극적 해결($F=1.17, p>.05$) 대처양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3을 보면, 초월과 사회적 지원추구 대처양식 모두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높음으로써,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초월적인 태도나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대처를 더욱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증상의 경우, 두 하위변인 모두에서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p>.05$). 학교수준별 주효과는 신체증상($F=38.12, p<.001$)과 심리증상($F=13.72, p<.001$)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학교수준별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표 3 참고), 두 하위변인 모두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이나 심리증상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주효과도 신체증상($F=33.25, p<.001$)과 심리증상($F=17.01, p<.001$)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 평균(표 3 참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증상에서도 높은 값을 보이므로, 여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 하위변인을 보면 가정생활($F=3.25$)과 여가생활($F=3.97$)에서는 $p<.05$ 수준에서, 학교생활에서는 $p<.01$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자신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학교수준별 주효과를 보면, 가정생활($F=13.70, p<.001$), 학교생활($F=46.43, p<.001$), 자기자신($F=6.35, p<.01$) 만족도에서는 학교수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여

가생활만족도($F=2.49, p>.05$)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 증상과는 반대로,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높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표 3 참고).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 및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학교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집단 간에 여가생활에서의 만족도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별 주효과는 여가생활만족도($F=21.69, p<.01$)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가정생활만족도($F=1.28, p>.05$), 학교생활만족도($F=.08, p>.05$), 자기자신만족도($F=1.28, p>.05$). 여가생활만족도에서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표 3 참고), 남학생이 더 높음으로써, 여가생활과 관련된 만족도는 남학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어머니 집단의 경우,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는 생활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집단의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t-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5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자녀관계 스트레스($t=-.17, p>.05$), 부부관계 스트레스($t=1.94, p>.05$), 과업성취 스트레스($t=.62, p>.05$), 경제적 스트레스($t=1.76, p>.05$).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변인 중에 자기조절

대처양식($t=2.15, p<.05$)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취업주부($\bar{x}=4.86, sd=.98$)가 전업주부($\bar{x}=4.72, sd=.97$)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기조절 대처양식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하위변인, 즉 초월($t=.54, p>.05$) 적극적 해결($t=.92, p>.05$) 사회적 지원추구($t=.16, p>.05$) 대처양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 증상은 신체증상($t=.79, p>.05$)과 심리증상($t=.79, p>.05$)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간에 스트레스 증상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 중에 가정생활($t=-3.69, p<.001$)과 여가생활($t=-4.07, p<.001$) 만족도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전업주부($\bar{x}=5.11, sd=1.15$)가 취업주부($\bar{x}=4.82, sd=1.09$)보다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에서도 더욱 만족하였다(취업주부, $\bar{x}=4.01, sd=1.15$; 전업주부, $\bar{x}=4.41, sd=1.16$). 그러나 자녀양육($t=-.59, p>.05$), 경제생활($t=-.48, p>.05$)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비록 가정생활만족도와 여가생활만족도 및 자기조절 대처양식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외의 모든 하위변인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두 하위집단을 합하여, 어머니 집단과 관련된 모든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녀수준별 성별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부모 집단

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수준별과 본인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하였다. 자녀수준 집단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단, 중학생 자녀가 있는 집단,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인의 성별에 따라 남녀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남자집단은 아버지 집단을, 여자집단은 어머니 집단을 의미한다.

자녀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5개 하위변인, 스트레스 대처의 4개 하위변인, 스트레스 증상의 2개 하위변인에서 모두 $p<.05$ 로 나타나므로써 의미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직장생활($F=4.24, p<.05$)만 제외하고는 4개 변인 모두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p>.05$).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수준별 주효과가 자녀관계($F=3.14, p<.05$)와 과업성취($F=3.25, p<.05$)에서만 있었고, 부부관계($F=1.25, p>.05$), 직장 인간관계($F=2.36, p>.05$), 경제적($F=2.01, p>.05$)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에서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자녀관계 스트레스에서는 고등학생 부모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부모, 초등학생 부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과업성취 스트레스에서는 초등학생 부모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부모, 고등학생 부모의 순서였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과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

성별 주효과는 경제적 스트레스($F=4.11$, $p<.05$)에서만 있고, 나머지 하위변인들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자녀관계($F=.98$, $p>.05$), 부부관계($F=2.55$, $p>.05$), 직장인간관계($F=2.14$, $p>.05$), 과업성취($F=1.43$, $p>.05$). 성별 경제적 스트레스의 평균을 보면(표 4 참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음으로써,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에서는 자녀수준별 주효과가 자기조절($F=8.52$, $p<.001$), 초월($F=3.18$, $p<.05$) 대처양식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적극적 해결($F=2.84$, $p>.05$)과 사회적 지원추구($F=1.44$, $p>.05$) 대처양식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4에서 자기조절 대처양식은 초등학교의 부모가 중·고등학교의 부모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초월 대처양식은 중·고등학교의 부모가 초등학교의 부모보다 평균이 더 높다. 성별 주효과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자기조절($F=1.86$, $p<.001$), 초월($F=1.98$, $p<.05$), 적극적 해결($F=3.34$, $p>.05$), 사회적 지원추구($F=.04$, $p>.05$).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자녀수준별 주효과는 두 하위변인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신체증상($F=.84$, $p>.05$), 심리증상($F=2.18$, $p>.05$). 그러나 성별 주효과는 신체증상($F=56.67$, $p<.001$)과 심리증상($F=61.78$, $p<.001$) 모두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처럼, 어머니 집단이 아버지 집단보다 스트레스 신체증상과 심리증상 모두 높았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버지 집단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의 경우에, 자녀수준별 주효과를 보면 가정생활($F=7.05$, $p<.001$), 자녀양육($F=13.31$, $p<.001$), 경제생활($F=4.28$, $p<.05$) 만족도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직장생활($F=1.54$, $p>.05$), 여가생활($F=.36$, $p>.05$)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면(표 4 참고), 가정생활 및 자녀양육 만족도는 고등학교 부모가 가장 낮고, 특히 자녀양육만족도는 초등학교 부모가 가장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생활만족도는 초등학교 부모보다 중·고등학교 부모가 더 높았다. 성별 주효과를 비교해 보면, 가정생활($F=3.78$, $p<.05$), 직장생활($F=15.61$, $p<.001$), 여가생활($F=13.55$, $p<.001$), 경제생활($F=7.80$, $p<.01$) 만족도가 모두 유의있게 나타남으로써, 자녀양육만족도($F=.15$, $p>.05$)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에서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 집단보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및 여가생활 또는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변인 중에 일치하는 하위변인들만 선택하여 집단 차이를 t-검증하였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하위변인 중에 두 집단 간에 공통적으로 측정된 변인인 경제적 스트레스($t=-12.94$, $p<.0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부모($\bar{x}=4.64$, $sd=1.47$)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고 학생($\bar{x}=3.88$, $sd=1.52$)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없는 편으로서, 부모가 학생보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4개 하위변인 중에, 자기조절($t=-13.75$, $p<.001$), 초월($t=-4.95$, $p<.001$), 적극적 해결 ($t=-20.22$, $p<.001$) 대처양식은 학생과 부모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원추구($t=.03$, $p>.05$)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부모가 학생보다 자기조절(부모 $\bar{x}=4.82$, $sd=1.01$; 학생 $\bar{x}=4.24$, $sd=1.16$), 초월(부모 $\bar{x}=4.19$, $sd=1.06$; 학생 $\bar{x}=3.97$, $sd=1.19$), 적극적 해결(부모 $\bar{x}=4.59$, $sd=1.12$; 학생 $\bar{x}=3.67$, $sd=1.23$) 대처양식 모두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자기조절적이고 초월적이며 적극적 해결을 추구하는 대처양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변인으로 신체증상($t=-7.61$, $p<.001$)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bar{x}=3.57$, $sd=1.45$)가 학생($\bar{x}=3.14$, $sd=1.43$)보다 신체증상이 더 많았다. 심리증상($t=2.48$, $p<.05$)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bar{x}=3.04$, $sd=1.47$)이 부모($\bar{x}=2.90$, $sd=1.36$)보다 심리증상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 중에 가정생활만족도($t=1.23$, $p>.05$)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여가생활만족도($t=12.5$, $p<.001$)에서는 매우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bar{x}=4.85$, $sd=1.04$)이 부모($\bar{x}=4.33$, $sd=1.09$)보다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학생 집단

학생집단의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가, 환경변인인 사회적 지원, 심리변인인 자기효능감, 행동변인인 학업성취 및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다(표 5 참고). 비록 상관의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생활사건 중 부모관계, 경제적, 외모스트레스와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부적 관계에 있었으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 및 학업성취와도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이와 대조적으로 일탈행동과는 정적 관계에 있었다. 특히 교사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관계 스트레스는 일탈행동과 상관의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많이 하고, 학업성취도는 낮으며,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경우는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과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구의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추구 대처양식, 교사관계 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추구 대처양식,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적극적 해결 대처양식의 상관이 .41~.49로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친구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라든가, 교사와 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대처양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학습을 스스로 조절하여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대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학생

스트레스 관련 변인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	일탈 행동
	부모	친구	교사	부모 관계	친구 관계	교사 관계	사회성	학업 성취	자기조 절학습	스트레 스대처	어려움 극복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생활사건													
부모관계	-.13***	.17***	-	-.23***	-.13***	-	-	-.11**	-.09**	-.16***	-.14***	-.12***	.24***
친구관계	-	.15***	-	-	-	-	-	-.08*	-	-.12***	-.10**	-.07*	.19***
교사관계	-	.18***	-.21***	-.07*	-.16***	.08*	-	-.13***	-.06*	-.13***	-.09**	-.12***	.32***
경제적	-.12***	.16***	-	-.12***	-.08*	-	-	-.14***	-	-.12***	-.08*	-.14***	.27***
외모	-.12***	.10**	-	-.13***	-.10**	-	-.10**	-.18***	-.11**	-.17***	-.15***	-.16***	.18***
학업	-	.23***	-	-	-	.09**	-	-.14***	-	-.15***	-.12***	-.17***	.14***
스트레스 대처													
자기조절	.24***	.31***	.19***	.28***	.28***	.25***	.26***	.28***	.37***	.28***	.36***	-	.09**
초월	.10**	.17***	.10**	.16***	.17***	.17***	.14***	.10**	.15***	.18***	.16***	-.07*	.09**
적극적 해결	.27***	.34***	.21***	.33***	.34***	.31***	.35***	.31***	.41***	.31***	.35***	.10**	.14***
사회적 지원 추구	.18***	.49***	.17***	.17***	.15**	.46***	.26***	.08*	.13***	.10**	-	-	.26***
스트레스 증상													
신체증상	-.08*	.21***	-	-.07*	-	.10**	.07*	-	-	-.14***	-.10**	-.11**	.17**
심리증상	-.15***	.11**	-	-.11**	-	-	-.09**	-.10**	-	-.24***	-.20***	-.14***	.15***
전체	-.13***	.18***	-	-.10**	-	-	-	-	-	-.22***	-.17***	-.14***	.18***
생활만족도													
가정	.64***	.23***	.29***	.64***	.43***	.32***	.32***	.35***	.40***	.38***	.36***	.20***	-.14***
학교	.37***	.22***	.51***	.49***	.56***	.32***	.34***	.44***	.48***	.43***	.40***	.33***	-.16***
여가	.33***	.24***	.24***	.38***	.30***	.31***	.31***	.31***	.29***	.32***	.35***	.11**	.11**
자기자신	.33***	.22***	.25***	.53***	.51***	.39***	.47***	.55***	.60***	.51***	.53***	.32***	-.08*
전체	.51***	.28***	.39***	.62***	.55***	.41***	.44***	.51***	.54***	.50***	.50***	.29***	-.09**

* $p < .05$, ** $p < .01$, *** $p < .001$

스트레스 증상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는 부정적 관계이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과는 정적 관계이며,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및 어려움 극복 효능감과는 부정적 관계에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와는 부정적 관계이나 일탈행동과는 정적 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대처 효능감이나 어려움 극복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스트레스 증상을 적게 경험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증상이 적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는 높고, 일탈행동은 적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들일수록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원($r=.64$) 및 부모관계 효능감($r=.64$)은 가정생활만족도와, 교사의 사회적 지원($r=.51$) 및 친구관계효능감($r=.56$)은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 성취효능감($r=.55$) 자기조절학습효능감($r=.60$) 스트레스대처효능감($r=.51$) 어려움극복효능감($r=.53$)은 자기자신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학업성취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의 만족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을 위해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는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효능감 및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능감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

표 6.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부모⁶⁾

스트레스 관련변인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성취도	SES
	배우자	친구	직장상사 동료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사회성	스트레 스대처	어려움 극복		
스트레스 생활사건										
자녀관계	.12***	.12***	.11***	.08**	.06*	.06*	.05*	-	-.08**	-
부부관계	-	.09***	.08**	-	.05*	-	-	-	-.17***	-.06*
직장인간관계	.09**	.12***	.09**	.07*	.06*	-	.07*	.06*	-.07**	-
과업성취	.07**	.16***	.12***	.08**	.10**	-	-	-	-.12***	-.07**
경제적	-	.09***	.11***	-	-	-	-	-.05*	-.26***	-.15***
스트레스 대처										
자기조절	.34***	.39***	.36***	.42***	.44***	.34***	.44***	.34***	.11***	.07**
초월	.16***	.23***	.22***	.18***	.23***	.21***	.21***	.27***	-	-
적극적 해결	.35***	.37***	.36***	.41***	.43***	.41***	.47***	.37***	.19***	.08**
사회적 지원 추구	.26***	.41***	.36***	.22***	.22***	.29***	.19***	.20***	.07**	-
스트레스 증상										
신체증상	-.08**	.05*	-	-.07**	-	-	-.07**	-.10***	-.15***	-.13***
심리증상	-.15***	-	-.06*	-.19***	-.12***	-.14***	-.19***	-.17***	-.23***	-.19***
전체	-.12***	-	-	-.14***	-.07**	-.08***	-.14***	-.15***	-.21***	-.17***
생활만족도										
가정	.57***	.30***	.34***	.67***	.55***	.36***	.39***	.34***	.35***	.11***
자녀양육	.32***	.26***	.28***	.48***	.53***	.30***	.33***	.27***	.23***	.08***
직장	.43***	.36***	.41***	.51***	.52***	.47***	.49***	.45***	.47***	.29***
여가	.39***	.30***	.31***	.46***	.43***	.42***	.43***	.42***	.43***	.16***
경제	.34***	.23***	.23***	.38***	.33***	.36***	.37***	.37***	.51***	.27***
전체	.51***	.37***	.39***	.62***	.59***	.49***	.52***	.48***	.49***	.24***

* $p < .05$, ** $p < .01$, *** $p < .001$

되었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와 관계: 부모 집단

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스트레스 생활사건 중에 경제적 스트레스는 성취도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적었다. 직장상사나 동료, 친

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약하지만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변인들은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들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지원추구 대처양식과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은 대처양식 중에서 특별히 자기조절 대처양식(.34~.44)이나 적극적 해결 대처양식(.37~.47)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

6) 스트레스 생활사건 하위변인 중에서 직장인간관계와, 생활만족도 하위변인 중에서 직장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지원 하위변인 중에서 직장상사/동료와 관련된 모든 분석에서는 전업주부의 자료가 제외되었음.

었다.

스트레스 증상은 성취도나 사회경제적지위와 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 증상은 자기효능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성취도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거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 증상이 적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성취도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가정생활만족도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r=.57$)과 부부관계효능감($r=.67$) 및 자녀관계효능감($r=.55$)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장생활만족도는 직장상사나 동료의 사회적 지원($r=.40$) 및 사회성효능감($r=.49$) 스트레스대처효능감($r=.51$) 어려움극복효능감($r=.4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부모의 스트레스 증상과 자녀의 스트레스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는, 신체증상(부 $r=.15$, 모 $r=.14$)과 심리증상(부 $r=.17$ $r=.16$) 모두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정적인 상관(부 $r=.16$, 모 $r=.22$)을 보였는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가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약간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약간의 정적 관계($r=.15$)에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사회경제적지위와 무상관을 보였고, 오히려 어머니의 성취도가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비록 낮지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7$). 또한 부모의 전반적인 자기

효능감 수준은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부 $r=.22$, 모 $r=.22$)에 있었다. 예컨대 부모의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자녀관계효능감은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부와 모의 경우 모두 $r=.19$ 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부모의 사회성효능감은 자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r=.22$ (부) $.20$ (모)의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부모의 자녀도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경험하며, 이와는 반대로 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가정생활만족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강도는 높지 않았다.

추가로 부모집단과 자녀집단 각각에서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증상 및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부모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변인들 모두($p<.001$) $r=.15\sim.31$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생활사건 중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신체증상($r=.26$)이나 심리증상($r=.31$)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들 중에서 직장생활만족($r=-.15$), 여가생활만족($r=-.15$) 경제생활만족($r=-.30$)과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한편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가정생활만족($r=-.15$)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증상은 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에 있었는데, 스트레스 신체증상($r=-.16$)과 심리증상($r=-.26$) 모두 가정생활만족과 부적상관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

학생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변인들 모두($p<.001$) $r=.29\sim.38$ 의 정적 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들은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그 중에서 부모관계 스트레스는 가정생활만족($r=-.26$)과, 교사관계 스트레스는 학교생활만족($r=-.28$)과, 외모스트레스는 자기자신만족($r=-.19$)과 상관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트레스 증상과 생활만족도 하위변인간의 관계를 보면, 신체증상($r=-.15$)과 심리증상($r=-.20$) 모두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 중에서 가정생활만족과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논의 및 결론

IMF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가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들 중에 특별히 주목을 끄는 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부모의 대표적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서 경제 문제

부모 10명 중 4명 정도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에서 가장 현저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문제가 부모에게 강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면서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경제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된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한국사회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뒤인 1998년(3월~6월)에 한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해 자유반응형식으로 응답하게 하고 그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즉 IMF시대 성인 남자와 여자(김의철, 박영신, 1999b), 직장인과 실업자(박영신, 김의철, 2000a)가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는 재정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IMF시대에 접어들기 이전인 1997년(3월~6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가정 생활이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지적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김의철, 박영신, 1997). 이와 같이 IMF시대 이전과 이후에 성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가 그들이 생활하는 시공과 상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환경요인의 중요성은 스트레스 상황(Lazarus & Folkman, 1984)에서만 아니라, 규제완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안전행동(박영신, 김의철, 박동현, 1999)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환경적 특징과 이러한 환경요인과 개인의 상호작용(Bandura, 1997; Kim, 1999)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의 대표적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서 학업 문제

이 연구에서 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IMF시대 이전의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7)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IMF지원 직후(김의철, 박영신, 1999b)에 학생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갑자기 국가경제가 위기상태가 되면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충격을 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와 IMF시대 이전의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7)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는 중요한 과제이고, 이로 인해 강한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큰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박광배, 신민섭, 1991; 이경희, 1995)과도 일치한다. 이는 한국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학업에서의 성취를 지적(박영신, 김의철, 1998)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로 학업에서의 실패를 인정(박영신, 김의철, 1999)한다는 결과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녀가 과외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가 81.2%(김양분, 김홍주, 양승실, 윤종혁, 김정래, 2000)나 되는 과외 열풍현상 역시 이 연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학업실패는 미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공부를 잘하여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미래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이나 내집단의 지위상승과 관련된 욕구 외에도, 학업성취에 대한 집착은 한국사회의 유교적 가치와도 관련되어 있다. 자녀의 교육과 성취에 대한 강한 애착은 가족이나 집안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 근면함이라든가 근검 절약,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와 더불어 유교적 전통을 가진 사회

에서 흔히 발견된다(Hofheinz & Calder, 1982).

자기조절 대처양식의 현저함

한국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 대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IMF시대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7)과 이후(김의철, 박영신, 1999b; 박영신, 김의철, 2000a)에 스트레스 생활사건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은 한국사람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이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든, 기분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든가 참고 수용하거나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등의 자기조절적인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뿐만 아니라 성취 상황에서도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취의식(김의철, 박영신, 1998)과 실패의식 및 미래성취의식(박영신, 김의철, 1999)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공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 및 미래성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도 노력, 의지력, 인내, 신념, 굳은 마음이 짐 등과 같은 것이 가장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사람들의 강한 자기조절력이 한국전쟁 이후의 피폐한 상황을 딛고 경제성장을 이룬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한국사회가 최근에 IMF시대로 진입하게 된 하나의 촉진요인으로 역기능을 하였을 가능성(Park & Kim, 1999)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자기조절과 동시에 환경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증대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전략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수준별 학생의 스트레스 증가와 생활만족도 감소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학업 및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생활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강한 학업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중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학업부담을 주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이 가장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누적해 나가는 동안 정신건강의 면에서 부정적인 양상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 연구에서의 결과가 횡단적 자료 분석에 기초한 것이고, 여러 외생변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수준 집단간의 차이를 학교생활의 누적된 영향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나아감에 따라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는 현상으로부터, 한국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대학진학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등교육을 인식하고 집착하는 것은, 학교생활이 학업과 관련된 압력을 지나치게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 학교이므로, 학

교에서의 성취와 의미있는 인간관계를 통한 만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하다. 그런데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통한 학업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은 일부이고 상당수는 상대적 실패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는 교사 및 친구관계로 압축되는데, 그 중에서 교사는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됨에 따라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결국 고등학생 시기에는 의미있는 직접적 영향력이 없었다.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점차 감소하지만,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증가(박영신, 김의철, 2000b)하는데, 이러한 친구의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Min, Park & Kim, 예정). 초·중(Chung, Park, & Kim, 예정). 고등학생(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모두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자녀성장에 따른 부모의 자녀관계 스트레스 증가와 자녀양육만족도 감소

이 연구에서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결과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자녀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녀양육만족도 및 가정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자녀양육만족도가 높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

라 양육과 관련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2000b)에 대한 결과와도 관련되고 있다. 즉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서적이거나 정보적 지원이 감소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도 감소하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나 함께 있는 시간도 감소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지적하였다. 이는 청소년들도 연령증가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들의 자녀양육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은, 자녀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세계를 갖고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대간의 차이가 때로는 갈등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이해함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부모자녀관계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사람들에게 있어 가정화목은 자아실현, 사회봉사, 부귀영화보다 훨씬 중요한 생활목표의식인 것으로,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가정의 화목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사실은, 성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이해도 필요하지만, 관계단위로 접근하여 이해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정적 관계

Bandura(1997)는 사회인지이론의 시각에서 건강상태에 대한 효능감의 영향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이 생물학학적 모델에 의존하였다면, 최근의 생물심리사회적 접근은 건강과 질병이 심리사회적요인과 생물학적요인의 상호작용 산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심리사회적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대표적인 변인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학생과 부모 모두,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에 스트레스 증상은 부모의 지원이나 자기효능감과 부적 관계의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LISREL 분석을 한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권혁호, 예정;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상관계수도 선행연구 결과들과 공통된 맥락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연구대상이 되어 온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사실은, 생활만족도에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계속적으로 누

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Chung, Park, & Kim, 예정; Min, Park & Kim, 예정)

부모와 자녀의 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부모의 생활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 관계를, 자녀의 스트레스 증상은 부모의 스트레스 증상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자녀성장에 따른 부모의 자녀관계 스트레스 증가와 자녀양육만족도 감소'에서 논의한 바처럼, 관계의 구조, 의미, 질, 역동, 영향의 맥락에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인식에 토대하여 관계효능감(김의철, 박영신, 1999a) 척도를 개발하여, 관련변인들과의 관련에 대한 검토가 시도된 바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구조 또는 집단 역동 내에서 한국사람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접근하고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인 분석 결과들(김의철, 박영신, 1997; 김의철, 박영신, 1999b, 박영신, 김의철, 2000a)에 기초하여 양적인 질문지를 개발하고, IMF시대 한국사람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변화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이러한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한국사람들이 IMF시대 이전부터 나타내고 있는 스트레스 관련

심리적 특징이 있다는 양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측면, 즉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환경의 맥락과 역동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토착적 심리현상의 규명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야겠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방향을 시사해 준다. 이 연구의 결과 중에서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변화해 나감에 따라 만족도와 스트레스가 변화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착적 심리현상과 관련하여서, 관계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앞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외국의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의 심리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일 것이다. 전경구, 김교현과 이준석(2000)도 한국문화에 알맞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스트레스 척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는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판 척도에 포함된 문항 중 일부를 한국 문화에 알맞게 교정했을 때 미국판과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경기도와 전라도에서만 표집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는 표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자가 제작한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생활만족도 변인의 내용타당도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고 신뢰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요인타당도를 검토하여 경험적 타당도에 대한 자료를 누

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집단의 학교수준별 성별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및, 부모집단의 자녀수준별 성별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에서 일부 하위변인 중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의 검토에 초점을 두었으나, 구체적인 하위변인들의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해서 차후에 보다 섬세한 연구설계를 통해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간 행위자는 단지 환경에 대해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존재(Bandura, 1997; Kim, 1999)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구에 맞게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존재(박영신, 김의철, 2001)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박영신, 김의철, 2001)을 함축한다. IMF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성인과 학생의 스트레스는,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심리 현상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삶의 방향을 규정하고 그 깊이를 더하며 질을 향상하는 데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수동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작인(agent)으로서의 인간'(Bandura, 1997)이 개인의 심리에 대한 구성과 관계적 역동의 구성 및 환경구성이라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초월적으로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가능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양분, 김홍주, 양승실, 윤종혁, 김정래(2000). 과외교습 실태조사. 수탁연구 CR 2000-3. 한국교육개발원.
- 김의철,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1999a).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1999b).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박광배, 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영신(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신념의 형성요인.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한국 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41~17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영신, 김의철(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2000a).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

- 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85~117.
- 박영신, 김의철(2000b).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2001). 서장: 자기효능감과 행동특성. 박영신, 김의철 역.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3. 서울: 교육과학사.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박영신, 김의철, 권혁호(예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와 형성.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박동현(1999).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적 시사: 규제완화정책의 영향 분석과 안전효능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 5(2), 161~193.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신현미(2000).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운(2000). 인문고 학생과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1998). IMF시대의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 한국심리학회. 경제불황의 심리적 영향. 1998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발표논문집.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2000). The parental efficacy scale. Unpublished research instrumen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SA.
- Chung, K., Park, Y. S., & Kim, U. (예정). The change, formation, and influence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 students'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p.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Hofheinz, R. Jr., & Calder, K. E. (1982). *The Eastasia edge*. New York: Basi Books.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Kim, U. (1996). Illness behavior pattern of Korean Nationals, Korean-Canadians, Korean-Americans, and Korean-Japanese. 제 30차 정신건강연구소 학술세미나: 질병행동과 정신건강.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19.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York: Springer-Verlag.
- Min, B., Park, Y. S., Kim, U. (예정).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Special Issue: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knowledge base of education in Asia.

원고 접수 : 2001. 3. 29일

수정원고 접수 : 2001. 5. 11일

게재 결정 : 2001. 5. 26일

The Stress, coping and life-satisfaction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Uichol Kim · Young-Sh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stress, coping style, and life-satisfaction of Koreans living during national economic crisis. This research focuses on four following aspects: 1) compare stressful events, coping style, and life-satisfaction among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also sex differences; 2) within student sample, comparison among educational level and sex and within adult sample comparison among different age of their children, are examined; 3) the effect of SES,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delinquency on stress, coping style, and life-satisfaction are examined; and 4) the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ound for stress, coping, and life-satisfaction are examined. A total of 983 students (primary school students=195, junior high school students=398,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309) and their fathers (employee=907, no response=76) and mothers (employee=362, housewife=481)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following scale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tressful event, coping style, stress symptoms, life-satisfaction, academic or social achievement, and background information and scale measuring delinquent behavior was added to the students' questionnaire. All the scales showed adequate reli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experience greatest stress from academic

pressure and adults experience greater stress from financial matters. Both students and adults were more likely to use self-regulating coping strategy. Life-satisfaction was highest for family life. Second, for the student sample, academic and relational stress increased with grade level and life-satisfaction decreased. For adults, parent-child relational stress increased as their children's grade level increased and life-satisfaction for parent-child socialization and family life decreased and satisfaction for financial matters with increased. Adult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tress due to financial matters and of efficacy (parent-child relational efficacy, relational efficacy for friends, and self-regulatory learning) predicted higher life-satisfaction, and for adults relational efficacy for spouse and parent-child relational efficacy, and coping efficacy were highly correlated with life-satisfaction. Fourth, the life-satisfaction of the students were related to their parents' life-satisfaction, self-efficacy.

Key words : stress, coping, life-satisfact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